

2017년 9월 14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사상 최고치 경신 지속

백악관, “트럼프와 상원의원들간의 만남은 매우 생산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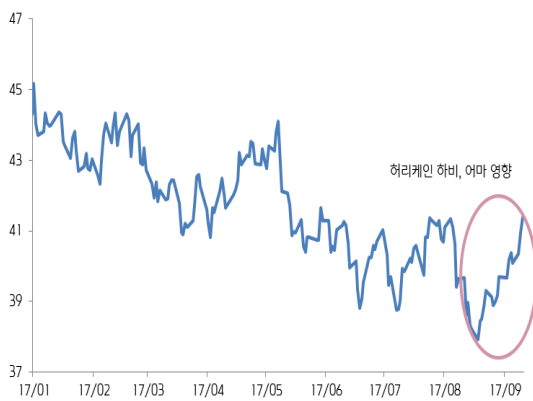
허리케인 피해 복구 관련 업종 상승

유럽증시는 폭스바겐(+0.74%), 다임러(+0.63%), 아디다스(+0.66%) 등 수출 관련 업종이 유로화 약세에 힘입어 상승 주도. 반면, 앵글로아메리칸(-3.19%), 글렌코어(-2.39%) 등 원자재주는 상품가격 하락 여파로 부진. 미 증시는 바이오를 비롯한 일부 업종의 차익실현 매물 출회되었으나 허리케인 피해 복구 관련 기업들의 상승으로 사상 최고치 경신. 더불어 백악관에서 “트럼프와 상원의원들간의 만남은 매우 생산적이었다” 라고 발표하며 ‘세계개편’ 기대감이 높아진 점도 상승 요인(다우 +0.18%, 나스닥 +0.09%, S&P500 +0.08%, 러셀 2000 +0.24%)

미 증시는 바이오, 반도체 업종에 대한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었으나, 허리케인 피해 복구 관련 기업들의 상승세가 시장에 우호적인 영향을 주며 보험권 유지. 특히 미국에서 월마트와 크로거에 이어 세번째로 큰 유통업체 타겟 코퍼레이션은 연말 쇼핑시즌에 작년 대비 40% 증가한 10 만명의 임시직을 고용할 것이라고 발표. 허리케인 피해 복구와 가계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 증가 기대로 추정. 이 결과 여타 소매판매 업종의 강세에 영향. 지난 2005 년 카트리나 피해 당시 비농업고용자수는 3 만 5 천건 감소하며 고용부진으로 이어지는 모습. 그러나 바로 이어 5 만 6 천건, 21 만 5 천 건으로 회복하는 경향. 이는 2008 년 금융위기 당시를 제외하고 2011 년 아이렌, 2012 년 아이작, 2012 년 샌디 때도 같은 양상. 타겟의 사례에서 보듯 이번에도 같은 양상을 보일 듯.

한편, 침수 피해에 따른 교체수요 증가로 가전제품 판매 업체인 베스트바이가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음. 더 나아가 포드, GM 등 자동차 업종과 함께 오늘은 오토존 등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강세도 특징. 전반적으로 허리케인 피해 복구에 따른 수요 증가 기대가 높아진 데 힘입은 결과. 지난 2012 년 미 북동부 지역을 강타했던 샌디로 인한 피해 차량의 교체 수요가 다음달에 약 8 만대가 증가했던 사례(시장 조사업체 에드먼트 추산) 등을 감안한 모습. 이러한 교체 수요는 자동차 외에도 베스트바이에서 보듯 가전제품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관련 업종에 대한 관심이 주목

미국 소매판매 업체 ETF(XRT) 추이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	Close	D-1	지수종류 (%)	Close	D-1
KOSPI	2,360.18	-0.22	홍콩恒生	27,894.08	-0.28
KOSDAQ	659.09	-0.15	영국	7,379.70	-0.28
DOW	22,158.18	+0.18	독일	12,553.57	+0.23
NASDAQ	6,460.19	+0.09	프랑스	5,217.59	+0.16
S&P 500	2,498.37	+0.08	스페인	10,371.00	+0.34
상하이종합	3,384.15	+0.14	그리스	809.98	-0.09
일본	19,865.82	+0.45	이탈리아	22,233.30	-0.0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소매판매 업종 강세

타겟(+2.80%)은 연말 쇼핑시즌에 전년 대비 40%나 늘어난 10만명을 고용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상승했다. 허리케인 피해 복구와 중산층 가계자산 증가에 따른 소비 증가 기대에 따른 결과로 추정한다. 아마존(+1.73%), 베스트바이(+3.19%), 코스트코(+1.84%), 월마트(+0.31%), 갭(+2.21%), N브랜드(+2.82%) 등 소매판매 업종 대부분 상승했다. 한편, 노스스트롬(+5.97%)은 사모펀드 레너드 그린으로부터 10억 달러를 차입하는 협상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발표하자 상승했다. 오토존(+3.23%), 오리얼리 오토모티브(+4.39%) 등 자동차 부품업종도 교체수요 증가 기대에 힘입어 상승했다. 코노코필립스(+1.40%), 데본에너지(+4.17%) 등 에너지주도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다.

애플(-0.75%)은 아이폰X의 출시 지연 여파로 하락했다. 큐로브(+0.08%), 스카이웍(-0.07%), 브로드컴(-0.36%) 등 일부 부품업체는 제한적인 상승을 하거나 하락했다. 한편, 전력 변환에 사용되는 회로를 만드는 파워인테그레이션(-3.32%)도 하락하는 등 주변 업종들의 하락세가 이어졌다. 웨스턴디지털(-3.42%)은 도시바 반도체 매각이 SK하이닉스를 비롯한 한미일 동맹 쪽으로 결정 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하락했다. 암젠(-0.68%), 바이오젠(-1.71%) 등 바이오업종은 차익실현 매물로 하락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2.79%	대형 가치주 ETF	+0.20%
에너지섹터 ETF	+1.97%	중형 가치주 ETF	-0.05%
소매업체 ETF	+1.05%	소형 가치주 ETF	+0.48%
금융섹터 ETF	+0.16%	배당주 ETF	-0.06%
기술섹터 ETF	-0.14%	변동성 ETF	-3.46%
소셜 미디어업체 ETF	-0.31%	대형 성장주 ETF	-0.07%
인터넷업체 ETF	-0.10%	중형 성장주 ETF	-0.26%
리츠업체 ETF	-0.42%	소형 성장주 ETF	+0.09%
주택건설업체 ETF	-1.11%	신흥국 고배당 ETF	-0.67%
바이오섹터 ETF	-0.33%	신흥국 저변동성 ETF	-0.48%
헬스케어 ETF	-0.37%	하이일드 ETF	-0.05%
곡물 ETF	+0.69%	물가연동채 ETF	-0.18%
반도체 ETF	+0.02%	Long/short ETF	-0.66%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84.63	+1.24%	+1.89%	+3.90%
소재	350.49	-0.04%	+2.22%	+3.67%
산업재	586.76	-0.13%	+1.66%	+0.58%
경기소비재	719.79	+0.72%	+0.47%	+0.94%
필수소비재	569.63	+0.07%	+0.43%	-0.45%
헬스케어	958.27	-0.36%	+2.20%	+4.88%
금융	411.29	+0.21%	+2.26%	-1.15%
IT	1,015.68	-0.16%	+1.11%	+1.78%
통신	153.57	+0.75%	+0.23%	-3.56%
유틸리티	275.22	-0.53%	-0.21%	+0.10%
부동산	202.68	-0.40%	-0.10%	+1.38%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외국인 선물 동향 주목

MSCI 한국 지수는 0.56% MSCI 신흥 지수도 0.53% 하락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 순매수(820 계약)에 힘입어 0.10pt 상승한 310.00pt 로 마감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31.7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한국 증시는 ①외국인 선물 매매 동향 ②일부 업종 차익실현 매물 여부 ③중국 경제지표 등이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한다.

외국인 선물 매매는 선물옵션 만기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수급적인 부분에서 한국 증시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허리케인 피해 복구에 따른 미국 소비 증가 기대감, 글로벌 수요 증가 기대감속에 상승한 국제유가, 미국의 세제개편 기대 등을 감안하면 외국인의 적극적인 선물 매도 물량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롤오버 물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한편, 미 증시의 특징 중 하나가 바이오 등 일부 업종에 대한 차익실현 매물 출회인데 이는 한국 증시 일부 업종에 대한 차익욕구 강화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그러나 한국시각 오전 11 시 발표되는 중국 실물 경제지표는 전월 보다 양호한 결과가 예상된다. 이는 한국 증시에 우호적이다. 지난 9 일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의 상승을 비롯한 중국 경기 개선 기대감이 높아져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를 감안하면 한국 증시는 일부 차익실현 매물 출회에도 불구하고 미국 소비증가 기대 및 정치 불확실성 완화, 그리고 중국 경제지표 개선에 힘입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선물옵션 만기일인 만큼 외국인의 선물 매매 동향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미국의 8 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2% 상승했으며 전년 대비로는 2.4% 상승하며 지난달(1.9%) 보다 높았다. 물가상승 압력이 강화된 모습이다. 한편,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수치도 전년 대비 2.0% 상승으로 발표되었다.

미국의 MBA(모기지은행협회)는 주간 모기지 활동지수는 9.9% 상승, 신청자수도 10.9%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채용자 신청자수도 8.9% 증가하는 등 주택시장 개선 기대를 높이는 결과를 발표했다.

유로존 산업생산은 전월(-0.6%) 대비 0.1% 증가하며 예상과 부합된 결과를 발표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가솔린 재고 감소와 IEA 보고서에 힘입어 상승

국제유가는 EIA 가 허리케인 하비의 지속적인 영향으로 원유 재고량이 지난주 대비 590 만 배럴 증가했다고 발표했으나 상승했다. 가솔린의 재고가 840 만 배럴, 정제유도 320 만 배럴 급감한 데 따른 결과다. 더불어 멕시코만 주변의 주요 정제시설의 복구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향후 원유재고 감소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영향을 줬다. 한편, IEA 는 올해 원유 수요량 전망치를 전월 보다 하루 10 만 배럴 많은 160 만 배럴 증가해 9,770 만 배럴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글로벌 원유 공급량은 8월에 하루 72 만 배럴 감소하는 등 수급 균형을 맞춰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달러는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특히 8월 생산자물가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였으나 전년 대비 2.4% 증가로 발표되는 등 반등세를 이어간 점이 강세 요인 중 하나였다. 이는 허리케인 '하비'와 '어마'로 인해 가솔린 가격이 급등하고, 피해 복구에 따른 물가 상승 기대가 높아진 점도 영향을 줬다. 더불어 백악관에서 "트럼프와 상원의원들과의 만남은 매우 생산적이었다" 라고 발표한 점도 세계개편에 대한 기대속에 달러 강세 요인이었다.

국채금리는 생산자물가지수가 반등세를 보이는 등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진 데 힘입어 상승했다. 더불어 30년물 국채입찰에서 응찰률이 2.21 배로 올해 들어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다. 국채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 점이 국채금리 상승 요인이었다. 이러한 국채입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주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 규모가 260억 달러나 된다는 점도 금리 상승 요인 이었다.

금은 달러 강세 영향으로 하락했다. 구리를 비롯한 비철금속은 달러 강세 영향을 받아 하락했다. 더불어 구리 재고가 증가하였다는 소식과 최근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욕구도 높아진 점도 하락요인이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의 야간시장에서 철광석은 2.03%, 철근도 1.60% 하락했다. 곡물은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수출 증가 발표에 힘입어 상승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49.30	+2.22	+0.28	Dollar Index	92.415	+0.58	+0.14
브렌트유	55.16	+1.64	+1.77	EUR/USD	1.1885	-0.69	-0.27
금	1,328.00	-0.35	-0.82	USD/JPY	110.48	+0.28	+1.15
은	17,867	-0.13	-0.24	GBP/USD	1.3208	-0.56	+1.27
알루미늄	2,110.00	-0.35	+0.86	USD/CHF	0.9642	+0.40	+0.78
전기동	6,553.00	-1.37	-4.90	AUD/USD	0.7985	-0.42	-0.19
아연	6,216.87	-1.31	-2.12	USD/CAD	1.2177	-0.07	-0.40
옥수수	351.50	0.00	-2.63	USD/BRL	3.1363	+0.32	+0.61
밀	443.25	+0.28	-0.56	USD/CNH	6.5476	+0.18	+0.10
대두	960.50	+1.05	-1.08	USD/KRW	1128.5	0.00	-0.61
커피	137.85	+2.07	+7.78	USD/KRW NDF1M	1131.75	+0.25	-0.11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2.188	+2.11	+8.37	스페인	1.570	-2.40	+1.20
한국	2.237	-1.00	-4.30	포르투갈	2.797	-3.40	-2.80
일본	0.034	+1.40	+2.20	그리스	5.396	-1.50	-3.50
독일	0.401	0.00	+5.40	이탈리아	2.035	+1.80	+1.30